



...우리의 目標...

- 1 在日僑胞의 救靈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크리스마스說教☆

★★★ 東方의 별 ★★★

朴 命 俊 목사

지금부터 1960여년전 어느
날밤 가장고요하고 거룩한
밤 동편하늘에서 힘있게비
추고있는 별하나가 있었다
이별은 천무후무한 별이다
그별은 무엇을의미하여 그
렇게 힘있게비추고 있었을
까 첫째 평화의왕 그리
스도의 탄생하심을 세상에
알게하리고 그렇게 비추고
있었던것이 아닐까 시조
아담의범죄이후 평화는 잃
어버렸다 가인때부터 개인
과 가정사회와 국가사이에
유형무형의 시기와 분쟁과
전쟁이 계속함은 역사적현
실이 증명하는바가 아닌가
여러 모양으로 평화운동을
하여왔으나 점점 큰전쟁은
생기지않는가 아-슬프다
이 세상에서 인위적으로는
평화가 오지않을것은 사실
이다 참평화의왕 그리스도
께서 강림하시매 평화의운
트기 시작하였다 그날밤
천사가 노래하기를 『지극
히 높은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
심을 입은사람들중에 평화
로다』 하였다(누가2장14절)
참기쁘고 아름다운소식이었
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
도의 영원하신 평화의왕국
이 완성 되기까지 전쟁이
쉬지않을것이다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의 주신평화가 우
리마음속에 운동하셔서 진
정한 사랑으로 하나로 화
평을 이루는것이 성탄을맞

기에 부끄럽지 않을것이다
들째로 공의의왕으로 탄생
하신 그리스도를 알게하리
고 동방의별은 중천에 떠
있었다 불공평한 세상에
그날밤 동천에 뜬 밝은별은
가장공평되히 부자집의 창
에만아니고 가난한집창에도
병상에 적적하게 누어있는
그들의 창에도 자유를잃고
철창생활하는 세상에서 버
림받은 그들에게도 비추어
주었을것이다 과연 우리
주예수께서는 만민을 구원
하여 주시는 공의의왕으로
오셨음을 밝히증명하여 주
셨다 원하옵나니 오늘날
공의를잃은 우리인간의 마
음속에 주예수여오시옵소서
셋째 암흑의세상에 참빛으
로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하시려고 동천에 힘있
게 비추고 있었던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유대국현상
은 사백년간 선지자가 끊
어져서 암흑하고 쓸쓸하고
고독에 빠져서 오실구주를
얼마나고대하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유대국 베들레헴성에 탄생하
심을 밝히 증거하기위하여
중천에 높이 떠있었다
원컨대 오늘날 우리어두운
심령속에 오-주예수여 힘
있게 비추시옵소서
네째 절망에빠진세상에 참
소망의 주로오신 그리스도
를 세상사람들에게 알게하
려고 동천에서 비추고있었

다 당시 유대민족의 현
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
로도 절망에 빠졌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들의심령에
만족을 주지못하였고 윤리
와도덕은 여지없이 부패하
여 민중은 삶의힘을 잃고
절망에빠진그들은 오직 홀
로하나이신 참소망의구주만
을 고대하였던것이다 과연
그날밤 소망의구주가 탄생
하셨다는 기쁜소식을 전하
기위하여 동방의별은 힘있
게비추고 있었던것이다
오늘 우리의 참소망과생명
은 오직 유대국 베들레헴
에 탄생하신 우리구주예수
밖에 없음을 깊이믿는 바
이다 (名古屋)

才23回總會記錄 (續)

- ② 예산안 검토
교역자생활비보조에관한건
지방교회외교역자생활이 곤
난하므로 선교60주년기념사
업을위한 모금에 이점을포
함하여 실시하되 후생국을
통하여 보조하게하고 예산
안을 통과가결하다
- ③ 특별발언
전장로는 십일조헌금을 실
시하여 재원을만들어 교역
자생활을 도우도록하자 또

한 개인적으로도 약한교회
를도우는 스폰서-제를 실
시하는것이좋다 김한필장로
④ 감사선정
명년도감사에 이선조 김만
준 박현섭 김한필 4장로를
선출하고 임기는2년으로하다
⑤ 안영준목사 위문가결
폐회예배시에 자유헌금을통
아 안영준목사를 위문하기

로 가결하다
⑥ 폐회예배
부회장 최정수목사 사회하
오윤태 총회장의설교 장하
원 전영복목사의 감사기도
가 있은후 3 일간의총회를
은혜롭게 끝마치다
총회장 오 윤 태
서 기 김 득 삼

教會消息

1968년 새해를 「그리스도
를따라 세상으로」라고하는
표어아래 각교회와 각지방
회에서 선교60주년을 기념
하여 중분한준비와 계획을
세워 활발하게 전개한다고
한다 특히 온교인이 신년
예배 사경회 공동의회등을
적극적으로 받들어나감으로
새로운 소망과축복을 받아
일년의신앙생활에 큰 지침
이되기를 바란다그한다 또
온교회와성도가 선교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포스타 통일주보 연보지등
을각교회와 가정에 배부한
다고한다
※신년예배(첫주일)는 기념
예배로지키고 설교는 선교
목적에따라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며 모든 성도는 결
심의뜻으로 헌금을 바친다
※ 장로사경회 표어「그리
스도를따라 세상으로」를
중심으로 교회혁신 사회봉
사를 지향하는 강연과성경
연구 대화를통하여 문제와

과제를 같이생각한다
※ 교회공동의회 각교회신
도총회는 선교70주년을향한
삼대목표와 기념사업을 받
들어나가는 결의와 진지한
안이 있기를 바란다

伝道集会開催

一枚岡教会一

지난11월11일(토)~12일(일)
枚岡교회에서 전도집회
를 강사반병섭목사의 설교
로「인생과종교」라는 제목
으로서 열렸다 50여명이넘
는 대다수의출석을 보였다
그가운데 20명이 처음복음
의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2 명의결심자가 나올정도로
많은 은혜를받았다 앞으로
의 발전을 바라는것이다

축 성 탄 하 신 년

横須賀伝道所 横須賀市公郷町三ノ八三(金九同方) 電話 五〇三九三	川崎教会 牧師 李 仁 夏 川崎市樓本町一ノ八 電話 二八二九三〇	調布教会 東京都調布市下石原一七六五	西新井教会 牧師 黄 義 生 東京都足立区興野町一七九 電話 八八七一三三六五	船橋教会 牧師 孟 哲 輝 船橋市宮本町四ノ五五一 二二一七四二四	東京教会 牧師 吳 允 台 伝道師 沈 恩 沢 東京都新宿区若宮町二四 東京文京区本郷四丁目二ノ一四 電話 二六〇一八八九一 八一一一八三二	在日大韓基督教總會文書委員會 委員長 丁 仁 壽 福音新聞編集責任 金 元 治	在日大韓基督教女伝道會全國連合會 會長 金 恒 斌	在日大韓基督教全國青年協議會 代表委員 李 精 一 外 委員 一同	關西地方信徒會 會長 金 京 秋 總務 金 仲 泰 外 役員 一同	在日大韓基督教總會 總會長 吳 允 台 總務 李 仁 夏 外 役員 一同
--	--	-------------------------------	--	--	---	--	--------------------------------------	--	--	---

宣教60~70周年実践目標

標語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총회산하에있는 모든 교회
가 감사절을 기쁨으로 지키
고 이제 구주성탄을 새로
운마음으로 맞이하려는 이
때 1968년새해를 선교60주
년으로「그리스도를 따라 세
상으로」란 표어와 ①교회
에혁신을 ②동포사회에 변
혁을 ③세계에 소망을 라
고하는 삼대목표를 높이들
고 1978년 70주년을 향하
여 온교회가 합심하여 사
회에서 봉사하며 만민에게
소망을 보여주도록 힘을다
한다는것은 참으로 의의깊
은일이다 십년간의실천목표
에는 두가지 특색있는운동
이 포함되어있다 하나는
온교인이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일을 자기네들의 맡은
새로운사명으로 받들어나가
자는 운동이요 또 하나는
60만동포의 특수한 사명을
이땅에서 완수하기위해 기
념사업을 추진하며 세계를
위하여 봉사하자는 자세이
다 70주년을향한 10년간
의목표는 다음과같다
① 보조교회는 자립하고
자립교회는 개척전도에 주
력한다
② 동포가 대도시에서 집
중하는실정을 파악하고 개
척전도를 실천하며 모든동
포들에게 복음에접촉할 기
회를준다
③ 교역자교환및 기구개
조와 전도 教育 청년 부
녀 각국에주사를두고 새로
운 전도체제를 확립한다
④ 연령 직업별 신도운
동을 활발히하고 이를추진
키위해 기독교회간을 건설
한다
⑤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역

사및 기념논문집 복음신문
전도지등을 발간하여 문서
활동을 적극추진한다
⑥ 교회는 지역사회 전
생활영역에 적극참여함으로
사회변혁에 공헌한다
⑦선교연구기관은 지역사회
전반문제를 연구하며 국제
각층과의 대화를 도모한다
⑧ 동포와 지역사회를위
해 유치원 학원 학생센터
기숙사 지역사회센터 양로
원 공동묘지등을 건설하고
기성하원 나병원 기타기관
을 협조한다
⑨ 동포청소년을 지도하
며 특히 지역사회 민족공

동체및 세계에 봉사할수있
는 인재양성에 진력한다
⑩ 조국통일 한국과일본
과의 화해의친선교류를위해
복음의입장에서 적극힘쓴다
⑪ 모국 일본및 세계의
타교파교회와 협력 선교사
명을같이하는 협력체제를더
욱 발전시킨다
⑫ 세계이웃민족에게 선
교사를파견하는 교회가된다
⑬ 교회일치와 연합선교
를위해 세계및 지역기독교
기관과 긴밀한연락을 가지
며 특히 시청각사업전도
기타방면에 협조 추진한다

宣教60周年
記念行事趣旨

1907년 東京에 한국 Y MC
A가 창설되어 한국인 유학
생들을 위한 복음전도를 시작
한것이 재일한국인 선교의
발족이며 1968년은 선교60
주년이 되는해이다 이 60
년은 가장역사적변천이 겪
었던시대였고 특히 재일한
국인교회는 일제하 민족수
난속에서 정치적압제 민족
적차별 신앙적박해등 쓴잔
을받아왔으나 하나님의 크
신역사를따라 우리의선인들
은 복음선교에일관하여 역
사를기록하였다 나라를잃고
만리타향에서 어둠에 싸인
재일한국인의 선교를위하여
본국교회는 목사장로를파견
하여 교회育成에 힘을다하
였으며 1927년부터는 카나

다장로교회가 선교사를보내
어 우리와함께 오늘의재일
대한기독교교회를 育成하였다
이에 60주년을맞이하여 하
나님께 영광을돌리며 신앙
의선배들에게 심심한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70주년을
향하여 10년간「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 표어밑
에 세계교회와 어깨를거누
고 본국교회와 캐나다교회
그리고 전세계의교회와 일
치하여 선교사명을 지니고
나가려는것이다 이사명을
추진키위하여 안으로는 총
회단체가 복음선교에 총력
을결집하여 교회혁신을기하
며 밖으로는 봉사의자세로
재일동포의 전 생활영역에
참여하기위하여 여러기관을
설립하는것으로 기념사업을

실시함과동시에 재일대한기
독교교회가 일본 동양 세계
에대하여 화해와대화의 역
활을 감당하므로 그리스도
의소망을 보여주는 교회로
서새시대를 맞이하려는 것

이 선교6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인것이다
1937년 9월 1일
선교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박우만 선교사를
보내면서

홍영기 목사(下関教会)

1955년 6
월30일에 대한식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서 1년4개
월간 미국각지를 순회하고
다니는중 재일교포를 생각
하여 자유로운몸으로 또다
시 1956년10월 2일 横濱항
에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그해11월20일부터 1961년12
월4일까지 5년2개월간浜松시
에서 이정열장로님과 함께
浜松전도소개척하고 静岡까
지 전도하시다가 1961년12
월5일부터 1967년7월14일까
지 宇部전도소로 이사하시
고 열심으로 전도하신결과

교회당도신축되고 전도소가
교회로 승격시키고 귀국하
시게되었다 이제 우리가생
각하면 그의일생은 우리민
족을위하여 오시고 끝까지
우리민족을 위하여 귀국하
신것입니다 특히 본국大邱
시에는 부인회창설과 부인
들에 계몽운동에 많은업적
을 감사하여 동선교사의기
념관이 설립되고있으며 춘
추만대로 박선교사의 공적
을 찬양하고있다 이는 우
리민족으로서 과연한예찬인
줄안다 재일교회우리도 그
의업적과공헌을 감사하자

67年度感謝節統計

당일에배출석자와 감사헌금	布施	51	198,980
은 다음과같습니다	堺	65	435,000
教会名 出席者 献金(約束含)	武庫川	90	450,000
川崎	西宮	61	278,000
西新井	神戸	110	705,600
横須賀	水島	23	48,520
横浜	広島	44	265,500
岡崎	三次	11	30,200
名古屋	下関	85	267,400
岐阜	小倉	52	189,500
大垣	熊本	30	180,000
桑名	川西	21	162,000
新儀	東京	160	500,000
大阪	京都	163	700,000
北部	宇部	18	120,000
平野	福岡	67	200,000
西成	豊橋	30	130,000
築港	春木	21	45,000
枚岡	調布	12	39,600

축 성 탄 하 신 년

西成教会	大阪教会	大阪北部教会	京都教会	新儀教会	浜松伝道所	岡崎教会	岐阜教会	名古屋教会	大垣教会	豊橋教会	横浜教会
牧師 金元治 電話 六五一・一五九六	牧師 崔正洙 大阪市大成通一ノ七三 電話 九七一・一六八二八 師宅 大阪市生野区猪飼野西四ノ三九 電話 七六一・〇〇五四	牧師 裴琪煥 大阪市大淀区庄東通二ノ四〇 電話 三七一一・一九一四	牧師 田永福 京都市右京区西院失掛町二〇 電話 三三二・一五〇五一	伝道師 鄭京姬 滋賀県高島郡新旭町新庄	長老 李禎烈 浜松市高林町一一五松本方	牧師 白南哲 岡崎市鳴田町砲場一六ノ一 二二一七・〇二五	講道師 金承俊 岐阜市長良海用町一ノ二七	牧師 朴命俊 名古屋市中村区島崎町一ノ二三 電話 五四一・一九八〇 師宅 四八一・四七三三	牧師 李昌雨 大垣市本町三ノ三四	講道師 金安弘 豊橋市八町通五ノ五六 電話 五四一・七〇一九	牧師 黄在正 横浜市中区打越町三九 電話 六八一・三二八七

この世に生きるキリスト者

金 宗 元

基督教は、その基礎をイエスのインカーネーションに置いた宗教である。このことは歴史の中にある具体的な、現実的な宗教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即ち基督教とはこの世俗文化と現実社会状況の真中に存する宗教として、一定した歴史的制約性から離れ得ないことである。故にキリスト者はこの世に於いての信仰生活が単なる回顧的なモードに留まるのではなく、又単なる未来に於ける一種の信仰理想主義に陶醉するのでもない。我等がそこに属している基督教は今日の宗教であり、常に今日の宗教として複雑な現実状況の中で今日の為存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では、今日の宗教としてのキリスト教が置かれている現実社会状況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ろうか？ それは要するに現実社会が多方面に於いて急激に変化しつつあると言うことである。現実状況が急変することに依つて社会が極度に多元化され、価値判断の標準は相対化し、特に日本のように社会が産業化されることによって生活様式が自動化になり人格的な交わりの場である家庭が一種の食堂になつたり寝台車になつて、そこで人間は次第に、その人格性が無視され言わば「機械化」「非人間化」されていくのである。即ち現実社会状況に於ける人間は意味喪失した人間である。生産過程への機械の導入は製品を規格化したのみならず生産に従事する人間そのものをも規格化しているのである。

キリスト教はこのような現実の中にある。即ちキリスト教会は現実社会状況に於いてそこに起る各々複雑な問題に対して責任を持ちつつ今日の解答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現代に於けるキリスト教会は世界何処に於いても、えれ自身問いを抱きながらよるめいており、複雑な現実状況には眼をつむろうとしている。今日のキリスト教会は自己自身の弱点を感知し、勇気を持つてそれを追い払い、断呼現実状況の中に進んで行くべきである。宗教改革の意味は人間が神の言葉にたちかえることによつて、世俗の中に於いて新しい人として生きることである。即ち消極的にこの世俗世界を避けるのではなく、その中でたくましく生きてゆくことの出来る健全なる「良きサムリヤ人」になることである。このことがこの世で生きるキリスト者の意味である。キリスト者が現世俗世界に生きようとするとき、その倫理の立て方には「目的論的」「誠命論的」「応答論的」方法の三つがある。先ず目的論的態度は、キリスト者がどのような社会を目標として進むべきかを問い、過去ラウシェンブッシュの「社会的福音連動」の様にキリスト教精神に根ざして理想の社会を建設することを目標としたのである。要するに人間は、目的<テロス>に向つて進む矢の如きものである。しかしそこには人間に社会的目標をかかげるとき、それが理想的なものであればあるだけ現実から遊離し、ユートピア的なものになりがちであつた。特に二つの世界大戦を経た現代のキリスト教会にとつては、ユートピア的目的論に対して幻滅

感を感じ批判的になつたのである。しかしキリスト教会は、ユートピア的目標ではなくキリストに於いて神のなした給うた歴史的な出来事の中に「究極的な目標」を見出すものがその光の下に、現実の歴史の方向について人間の限定を承認しつつ意図する暫定的な目標から明日の姿を見るべきである次に誠命論的な態度は「何々を……するな」「何々をせよ」と言う命令に従おうとする。

ティーリッヒの神学思想

金 承 俊 강도사

一、啓示論

- 1. 序。ティーリッヒは理性と啓示の結合に苦心し、その成功を確信している。彼によれば啓示とは常に特別なもので、又具体的状況に於ける個人に対して起るものだということ。それ故に最初に聖書の中に啓示された御言葉よりも今、ここに照らされた啓示の経験を重視する。
- 2. 啓示は何故必要なのか？人間が創造された時の本質存在にあつては主観的理性がそれ自らの深みと結合していた所が墮落してから現実にあつては両者が分離してつたそれも創造力と破壊力とが人間に働き乍ら実存的力と本質的力とが結合しつつ同時に、分裂している。このような実存的状況にあつては理性の構造的諸要素が相働かず、敵対して働き、自律性と多律性、絶対主義と相対主義、形式主義感情主義等の紛争を起していると彼は云う。認識作用に矛盾を見て知識を制御知識と

受容知識とに二分する。前者は実験により証明しうる事物を扱う知識とし、後者は経験的にのみ証明しうるものは関する知識だとしている。彼は知識はジレンマに立つ。制衡知識は安全だが究極的に重要でない。他方受容知識は究極的に重要でありうるが、確かさを与え得ぬ。それは生命の極端な冒険を伴う。と云っている。このジレンマに立つて人は真理に達する一切の希望を捨てるか、又は啓示を捜し求めるか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この様な一切の問題が最後の絶対的である啓示への必要を指し示しているのだと彼は云うのである。

3. 啓示をどの様に見ているのか？ 彼によれば、啓示とは究極的に我々に関するものについての表示、つまり人間の究極的関心事の質問への答えであり、又普通の経験を超越するものの表示であつて存在自体の神秘について教えてくれる。啓示とは理性の深みと存在の基底との顕現であ

る。つまり啓示とは存在の基底又は神を啓示する働きをもつた理性の次元で、失われた深みとの再結合だということである。啓示とは言葉の記録でもキリストの言葉の記録でもない。ティーリッヒはそれ故にイエスの言葉をその存在に関する表現とし、聖書自体の言葉も啓示ではなく、最後の啓示に参考している書だという。彼は又十戒や新しい契約を新しい実在と究極的存在とを哲示する部分的事件と見て言葉による真理の伝達とは見ていない。啓示された戒めとか、教理とかは存せずあるのは、ただ啓示された実在だけだとしている。彼は戒めや教理の内容よりもその啓示によつて起つた。その事件を強調し、戒めや教理は新実在を指すだけだとする。一時的状況での啓示事件の内容は常に同一であり我々の実存を突き破つて来る究極的な何かの表示であり、旧約全体がこの唯一の使信を与えているとする。彼は啓示を客観的側面と主観的側面という二面を見ている。前者は相対的価値しかない者を第二の神のロゴスの絶対的原理に於ける本質的神・人たる者に結合させたものがこの事件であつて最後の啓示といひ、彼のいう受肉の教理である。後者、主・客関係が停止する経験を瞬間的に味わう状態である。つまり最終的啓示として、キリストに見出すもの即ち新実在の出現（客観的側面）と、この実現と、自分と、結ばれた経験（主観的側面）である。この新実在の経験を新存在に於ける参与と呼び、聖書の全てがこの新実在を指し示していると見てこの事が彼の新しき存在によく表わされている。

(続く)

築 港 新 年 刊

築港教会		大阪市港区西田中町四ノ六九 五七三一二五四〇	
柏原伝道所		大阪府柏原市柏原町七五一	
平野教会		大阪府八尾市竹淵五四九 電話 七〇九一五五五九 師宅 竹淵三三〇ノ七	
堺教会		大阪府堺市少林寺町東二ノ二一 電話 三一五三八二	
春木教会		大阪府岸和田市春木八幡町七八五 電話 二一二八三呼	
枚岡教会		大阪府南庄町九一八 電話 八一三三〇九呼	
布施教会		大阪府生野区大友町三ノ一五 電話 七五二一五七九	
武庫川教会		兵庫県尼崎市今北字小袋五七 電話 四〇一四一三二	
川西教会		兵庫県川西出家字鳥羽四	
西宮教会		西宮市芦原町三ノ一 電話 六七一六九八八	
神戸教会		神戸市長田区蓮池町二四 電話 六九一六二七 師宅 六九一四五〇七	
水島教会		倉敷市水島南島町五番一三三 電話 四四一五五一五	
三次教会		広島県三次市三次稻荷町	

「クリスマスメッセージ」



聖 書

わが道を行く

マタイ 16:21~28

(1) 主イエスは弟子たちが主を神の子キリスト（求主）であると信仰告白した時に御自分がユダヤ者の指導者によって十字架につけられて三日目に復活することを予言なさった。この時に主に対して十字架刑という恥かしめと苦しみがありえようがないと、慰めたペテロに対してサタンよ私の後に退けとはげしく怒られたこれはいくら愛弟子の慰めと励ましの言葉であつても神より授けられた使命の道である十字架を避けられるようなこと、即ち人間的な思によつて神の御旨に反するようなことは絶対に信仰の良心が容認しなかつたからである。どんなにつらいことであつても神の御旨に反するようなことは主にはできなかつたのであるむしろ積極的にこの十字架の道を選ばれたので三回も弟子たちに対して十字架の死を予告せられ。（マタイ16:21 17:22~23 20:17~19）

(2) パウロにも改心の後はまっしぐらにこの十字架の道をすすんだ。エルサレムに行つて多くの迫害と苦難がまわっていることを知りながらも御霊に迫られて、投獄と患難を覚悟してエルサレム行きを決定した。（行20:22~23）ペテロも主の名によつて、教えを広めてはならないとの命令を犯してあえて福音をのべ伝えた。彼らは神の言葉に従うのであつて人の言葉には従わなかつたからである。（行5:

28~30）ヤコブ、ヨハネも主の飲む杯を飲み主の受けるバプテスマである殉教の死をも覚悟して（マルコ10:38~39）伝道に励み切り殺されたのである。（行12:2）

(3) 私たちもこの主イエスを信ずる者として主の道を行く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自分を捨て自分の十字架を負うて主に従う者こそが主の弟子としてふさわしい者であるにも拘らず、自分の命を救おうと思つてかえつ失なつていようなものである。もう少し主の為に、私は何をなすべきかと

自分を献げる決心をしなければならぬ。あまりにも自己目的の為に主の名を呼び、主を利用するような不心得の信仰者になりさがっている。主の為に火の中、水の中でもとびこむような覚悟が必要である。今日あつて明日なくなるような地上の生命にあくせくしすぎている。神の恵みの福音をあかしするためにこの命は少しも惜しくないパウロと同じように告白しつ、主の如く信仰によつて我が道を行こう。（行20:24 マルコ14:24）

韓国人と交わって

廣 島 節 子
（大阪女学院教師）

私に会つたことがある人は「あのノツポのちよつとかわつた女の子が厚かましくも何をかいているのかなあ？」とお思いでしょう。紙上で初めてお会いする人は「この女の子が福音新聞にどうして現われたのか？」とお思いでしょう。とにかく、私が韓国人と交わるようになった経緯から話を始めましょう。一九六二年八月まで、私にとつて朝鮮半島は学校で教えられる地理や歴史の端っこに出てくるだけでした。大学時代私はYM・YWの学生キリス

ト者運動（学Y）に参加していました。この学Yで国交正常化前ですが日韓交流企画のプログラムがありました。御殿場の東山荘での全国夏季学校の席に韓国から学生が招かれました。彼等は韓国の政治社会状況に関する質問に対して答えることは身を危険に曝すことになるのだとして、一般的な答えとただけでしたその様な彼等の立場を理解出来なかつたのです。「どうしてなのか？」と疑問を持つた時に韓国が私の問題意識の中に飛び込んで来ました。

そして翌年夏、韓国慶州で国際ワークキャンプが開かれ日本から六名の学生が派遣されました。その一人が私です自分の目で耳で肌で韓国を知りたいという欲望が玄海灘を越えさせました。七月末の出発前に、大学の先生の終介で西成教会を訪ね、金元治牧師様より韓国語で簡単な挨拶等を教わりました。韓国教会の門をくぐつたのはこれが始めてでした。日本人学生と一緒に参加する東南アジアからの留学生には予定通り査証がおりたのですが、私達は一週間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のです。その間、福岡教会にゆき、折よくNCCキャラバンメンバーと共に青年会との交わりで在日韓国人が背負っている問題の一端を生で初めて私は耳にしたのです。初めてといいますと、韓国料理を福岡で食べたことを憶えています。座礁騒ぎで救命具をつける一幕を折り込みながら釜山についた時に入つたのは赤茶色した禿山、教会、のさばっているUN文字でした。

癩患者社会復帰村、希望村での二週間を含めて二十日ばかりの滞在期間に自分の意見を述べられなかつた韓国学生の立場が理解出来、本等を通じて仕入れた知識とこの眼で見た現実の差が大きいことに気づきました。そして、自分のまわりにある問題に盲目であつたことを恥かしく思い勉強しなければという気持ちが湧いてきました。

しかし、時間の経過と共に情熱も一時的なもので終り、単に学生時代の貴重な体験として思い出の中に仕舞込むことも出来たのです。ところが、社会人として一步を踏み出したと同時に私と韓国のつなが

りが更に強められることになつてしまつたのです。私が勤める学校のすぐ隣にKCC事務所が置かれ、日本語のお手伝いということで麦仁道（マツヤントツシュ）宣教牧師御一家と交るようになり、事務所に出入り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大韓基督教の牧師、長老様、青年会員、時には韓国からのお客様等に事務所で御会いする機会が重なつてゆきました。更に韓国に関心を持つ以前から瀬戸内海の長島にある瀬療養所の教会と交り続けていたのですが、韓国にいった年の秋、長島で私の体験を話すことにより、それまで知らなかつたのですが、多くの朝鮮人患者がいることを知りました。

韓国の友人、日本にあつてこうした交りの中でいつの間にか私の心の中に韓国が大きな位置を占めていました。一九六五年韓日條約締結をめぐって両国の関係が険悪化し渡航業務停止の為予定していたワークキャンプ参加が駄目になりました。他の参加者は諦めたのですが、私はなんとしても行きたかつたのです。とうとう、デモで騒然としているソウル（ソウル）へ一人飛びました。緊張と不安感で一杯だつた私の心はソウルの街に着いた途端ホットしました。東京は不案内ですがソウルは一人歩き出来ます。大きな声で韓国の流行歌で歌曲を唄います。自分でもそんな私を「ちよつとかわつていいるなあ……どうしてこんな私が出来たのかしら。」と思う時、知らない間に広がつていつた交わりの中で経験した喜び、悲しみ痛みが私を変化させたと云えるのです。

新 年 下 折 福 熊 品 宣 西南 中部 関東

宣教師 西南地方担任 福岡市大字名島里崎町二三八四ノ一 電話 六八一四五三八 中部地方担任 東京都新宿区若宮町二四 電話 二六九一二九〇九 関東地方担任 東京都新宿区若宮町二四 電話 二六九一二九〇九	品川教会 講道師 金 桂 昊 東京都品川区豊町三ノ一一 電話 七八三一五八九	北海道伝道所 北海道江別市西野町一	熊本教会 牧師 金 得 三 熊本市本山町四五二 電話 五三三四三九五	福岡教会 牧師 金 徳 成 福岡市大黒町一三七一ノ四〇 電話 六五一九七八六	折尾教会 九州市八幡区折尾日吉町 五一三二六 電話 六九一三〇七一	小倉教会 牧師 崔 昌 華 北九州市小倉区白銀町二ノ四〇九 電話 五二一八七五六	下関教会 牧師 洪 永 其 下関市東大坪町一四四 電話 二二一〇〇九七	宇部教会 牧師 韓 在 秀 宇部市西中町九ノ三一 電話 二一〇二五一	広島教会 牧師 金 信 煥 広島市上天満町九番三三 電話 三二一四七三九
--	--	-----------------------------	--	--	--	--	---	--	--